

국회의장 조정식·추미애 2파전에 '5선 의장론' 대두

조, 대표적 친명계 물밑 작업 중...추, 최종 여성 국회의장 도전 5선 출전 변수...김태년·안규백·우원식·윤호중·정성호 등 거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해 원내 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차기 국회의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물밑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

국회의장은 국가 의전 서열 2위로, 원내 1당에서 2명이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 각 2년의 임기로 선출하는 것이 관례였다.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가 국회 본회의 무기명 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 찬성을 얻으면 당선됐다.

17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차기 국회의장을 놓고 이번 총선에서 6선 고지에 오른 조정식 사무총장(61)과 추미애(66) 전 법무부 장관 간 2파전이 예상된다. 두 사람 모두 국회의장직 도전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대표적인 '친명' (친 이재명)계로 꼽히는 조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선거와 지난 대선 캠프에서 총책을 맡는 등 그동안 이재명 대표와 호흡을 맞춰왔다는 점에서 '친명' 계의 지지가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또한, 이번 총선에서 공천 등 선거 실무를 담당하며 압승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점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조 사무총장은 이번 선거과정에서도 수도권 일부 후보들을 찾아 지원에 나서다가 하반기 차기 국회의장 출마를 위해 '2선결+4개력' 공약을 일찌감치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2선결' 내용으로는 야당대표 영수회담 즉각 수용 요구와 국회의장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9개 특검 및 법률안 조속 처리 등이 있다.

'4개력'은 국회 권력 강화를 위한 개헌, 본회의 수시 개최를 통한 민생국회 실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국회 역할 정립,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및 대안마련을 위한 국회 정개특위 조기 구성 등이 있다.

조 사무총장은 22대 국회에서 정당 정치와 의회 정치를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단호히 맞서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차기 의장 도전을 준비중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이번 총선에서 6선 고지에 오르면서 헌정 사상 첫 여성 국회의장 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추 전 장관은 총선 전부터 6선에 성공하면 국회의장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었다. 그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혁신의장의 역할을 많이 기대해주기 때문에 그런 역할이 주어진다면 거부하지 않겠다"며 "총선의 민의를 누가 잘 반영하고 실행할 수 있느냐, 누가 가장 근접한 실행을 해왔느냐가 포인트가 아닐까 싶다"라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2016년 당 대표로 선출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이끌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당 일각에서는 두 사람이 경선을 치르고 전반기와 후반기 의장직을 나눠 맡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당내에서 서서히 대두되는 '5선 의장론'이 변수가 될 수 있다.

21대 국회 내내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벌여온 만큼 거대 양당의 협치를 잘 이끌 '일하는 의장'을 뽑아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5선 가운데 도전자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5선 후보군으로는 김태년·안규백·우원식·윤호중·정성호의 원 등의 이름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 역시 친명계로 분류된다.

당 일각에서는 두 사람이 경선을 치르고 전반기와 후반기 의장직을 나눠 맡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당내에서 서서히 대두되는 '5선 의장론'이 변수가 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경제 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3고 현상 심화에도 정부 안보여...민생회복 긴급조치 제안"

"尹 총선 입장 발표에 가슴 답답 안전벨트 준비해야 할 상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민주당은 선거 때 약속한 민생 회복 지원금(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을 포함한 민생 회복 긴급 조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와 민생이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중등 갈등으로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이 다시 심화하는데 정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번 총선에서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절박한 외침에 말로만 민생, 민생, 민생, 세 번 외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민생 회복 지원금 13조원, 소상공인 대출 이자 부담 완화에 약 1조원이 들어갈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금리 대한 대출 2배 확대, 소상공인 전 통시장 자금 4천억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며 "소

상공인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데 약 3천억원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런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다"라며 "국민 다수에게 필요한 정책을 하는 것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냐"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전술 윤석열 대통령의 총선 결과 입장 발표에 대해서 "어제 대통령의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 갑자기 또 가슴이 막히고 답답해지기 시작했다"며 "어떤 분하고 통화하며 의견을 물었는데 '다음의 준비를 더 단단하게 하고 안전벨트를 준비해야 할 것' 이라고 말씀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 예비초선 모임 시동...소장과 '자정' 역할 할까

국힘, 30대 초·재선 모임 추진 민주당서도 초선 모임 공감대

22대 국회가 다음 달 말 임기를 시작하는 가운데 여야 각 당의 예비 초선들이 의원 모임 결성을 준비하고 있어 그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힘자' 수도권에서 살아 돌아온 30대 김재섭(서울 도봉갑), 김용태(경기 포천·가평) 당선인이 초·재선 의원 모임 구성을 추진 중이다.

김용태 당선인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김재섭 당선인과 함께 모임을 만들자고 뜻을 모았고 이제 사람도 모으고 있다"며 "순수한 공부 모임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당선인은 '공부 모임'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일각에서는 비윤석열)계의 세력 다지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에서도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모임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한 초선 당선인은 이날 통화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된 것은 없지만, 초·재선 모임을 만들 생각"이라며 "서로 이야기를 할 공간이 필요하고, 각자의 특성과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모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광주 지역 초선 당선인은 통화에서 "광주 지역 당선인끼리 워크숍하고, 입법 활동 공부 모임도 하려고 한다"며 "아직 구체적인 모임이 구성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이같이 22대 국회에서 당마다 여러 개의 초·재선 모임이 생겨날 것으로 보이며 이들이 소장과로서 정치 개혁과 혁신의 목소리를 낼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

21대 국회 내내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벌여온 만큼 거대 양당의 협치를 잘 이끌 '일하는 의장'을 뽑아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5선 가운데 도전자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5선 후보군으로는 김태년·안규백·우원식·윤호중·정성호의 원 등의 이름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 역시 친명계로 분류된다.

당 일각에서는 두 사람이 경선을 치르고 전반기와 후반기 의장직을 나눠 맡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당내에서 서서히 대두되는 '5선 의장론'이 변수가 될 수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 "법사위·운영위 민주당이 맡아야...그게 총선 민심"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와 운영위 상임위원장을 맡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7일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을 두고 "법사위와 운영위는 이번에는 꼭 민주당이 갖는 게 맞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국회 운영의 틀을 한번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21대 국회에서 특히 하반기 국회가 전혀 작

동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가 이 법사위 문제가 있었다. 해도 해도 너무 했다. 이런 생각이 든다"며 "법적 절차, 입법 과정의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이전 안 되는 수준으로 만들어 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와 같은 상임위 구조라면 법사위원장을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맡는 게 맞고 그게 이번 총선의 민심"이라며 "운영위도 역시 국회 운영은 다수당이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상·하원 상임

위원장을 모두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다 가져간다"며 "원칙적으로 미국식 방식을 도입하지는 분 들도 계신다"고 소개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헌정사상 최대의 야당 의석수는 국회를 국정운영의 한축으로 인정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국민은 지난 2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대통령의 모습에 입법권력까지 여당에 내준다면 대한민국에 큰일이 나겠다는 절박함으로 정권을 심판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잔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증상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공고

발안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필적권(가시영향) 시행령 제4조의2

- 발안사업개요
 - 발전소 명: (유)천사나눔태양광 태양광발전소 사업
 - 발전소위치: 전남남도 신안군 진도읍 광장리1661번지 외 31필지 (총 30필지)면적 1701-5, 1701-7, 1701-9, 1701-11, 1701-13, 1701-17, 1701-19, 1705-21, 1705-27, 1702, 1702-2, 1702-6, 1702-7, 1702-9, 1702-15, 1703-6, 1703-9, 1703-14, 1703-15, 1703-16, 1703-19, 1705-25, 1705-30, 1706-23, 1706-21, 1706-26, 1701, 1703, 1703-6, 1705-29
 - 발전소면적: 738,497㎡
 - 공고기간: 2024. 04. 15. - 2024. 04. 24. (10일)
- 발안사업의 주요내용
 - 발전소용량: 97,9875kW
 - 사업계제정일: 2022년 01월 이후
 - 사업 운영기간: 2027. 01. 01. - 2046. 12. 31. 20년간
- 발안사업 허가 신청장
 - (유)천사나눔태양광 대표이사 남상민
- 주민의견 제출
 - 기간: 2024. 04. 15. - 2024. 04. 24. (10일)
 - 의견제출방법: 전화: 062-263-8211 팩스: 062-263-4212 E-Mail: hnm9485@hanmail.net
- 열람장소
 - 장소: 신안군청 신재생에너지과 미래에너지팀
 - 주소: 전남 신안군 암매울 천사로 1004
 - 전화: 061-240-8334

※ 해당 사업관련 자료열람을 원하시는 경우, 위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료열람을 하실 수 있으며 내용이 불만사항 경우 제기할 절차가이드도 하겠습다.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공고

발안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필적권(가시영향) 시행령 제4조의2

- 발안사업개요
 - 발전소 명: (유)백산신재생태양광 태양광발전소 사업
 - 발전소위치: 전남남도 신안군 진도읍 광장리1661번지 외 31필지 (총 32필지)면적 1616-6, 1616-8, 1616-2, 1616-4, 1620, 1620-2, 1621, 1621-2, 1622, 1622-2, 1622-5, 1617, 1617-2, 1617-4, 1617-6, 1618, 1618-4, 1619, 1619-2, 1619-4, 1619-10, 1614-2, 1614-3, 1614-4, 1614-5 / 백양리 1704-25 / 자등리 1976, 1976-2, 1977, 1977-2
 - 발전소면적: 740,863㎡
 - 공고기간: 2024. 04. 15. - 2024. 04. 24. (10일)
- 발안사업의 주요내용
 - 발전소용량: 99,000kW
 - 사업계제정일: 2022년 01월 이후
 - 사업 운영기간: 2027. 01. 01. - 2046. 12. 31. 20년간
- 발안사업 허가 신청장
 - (유)백산신재생태양광 대표이사 김도일
- 주민의견 제출
 - 기간: 2024. 04. 15. - 2024. 04. 24. (10일)
 - 의견제출방법: 전화: 02-3440-7941 팩스: 02-6281-9001 E-Mail: 218001@dscc.kr
- 열람장소
 - 장소: 신안군청 신재생에너지과 미래에너지팀
 - 주소: 전남 신안군 암매울 천사로 1004
 - 전화: 061-240-8334

※ 해당 사업관련 자료열람을 원하시는 경우, 위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료열람을 하실 수 있으며 내용이 불만사항 경우 제기할 절차가이드도 하겠습다.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2차)

본 회사는 2024년 4월 17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 결의의 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으신 분은 이 공고에 기재된 익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8일

주식회사 인천송도엔터테인먼트이
광주광역시 동구 천원로 339, 1803호
(수기증, 제일오피스텔)
청산인 이상호

채권신고공고(1차)

주식회사 상진해운
위 회사는 2024년 4월 17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 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채권자는 2024년 6월 18일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일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4월 18일

주식회사 상진해운
여수시 용천로 189, 108동 902호
(웅천동, 웅천부영(자이파트))
청산인 채은숙

분할합병공고

(채권자의 및 주권제출 공고)

우리전력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주식회사 진우개발(이하 "을"이라 함)은 서기 2024년 04월 17일 개최된 각 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의 전기공사사업부를 분할하여 을 분할된 부분을 "을"에 할양하고 "갑"과 "을"은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 1개월 내에 관계 회사로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 회사의 주주는 해당 회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

2024년 4월 18일

"갑" 우리전력 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120111-081155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방죽로 312, 708호
(주안동, 주안제타워2차지식산업센터)
대표이사 조한창

"을" 주식회사 진우개발
(법인등록번호: 205511-0054601)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정소길 147
대표이사 문재만

자본감사 및 주권제출공고

본 회사는 2024년 04월 16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자본금의 총액 금1,200,000,000원 중 금470,000,000원을 감차하고 자본금 금730,000,000원으로 하기로 결의하고 그방법으로서 발행주식 총수120,000주 중 47,000주를 1주당 금10,000원에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비율대로 유상소각하여 총 발행주식총수120,000주를 73,000주로 감차할 것을 결의하였음. 이 자본감사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고, 구주권을 가진 사람은 이 공고 게재 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주권을 본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18일

주식회사 서암
경기도 광명시 양지로 21, 제유-플래닛타워동 제6층 제612호 (원익동, 유-플래닛)
대표이사 박영진

자본 감사로 인한 주권제출공고

본 회사는 2024년 4월 15일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자본의 총액 금800,000,000원 중 금750,000,000원정액을 감차하여 금50,000,000원으로 하고 그 방법으로 1주의 금액 금5,000원의 주식 150,000주에 대하여 각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비율대로 유상소각하여 발행주식 총수160,000주를 10,000주로 변경하였으므로 이 자본감사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와 구주권을 가진 사람은 이 공고 게재 익일부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이에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8일

주식회사 가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보안면 농공단지길 28
사내이사 이성중

자본감소공고

당 회사는 2024년 4월 17일 임시 주주총회(주주총회의 서면결의)에서 자본의 총액 금 200,000,000원을 금 10,000,000원으로 감소하고, 그 방법으로 1주의 금액 금 10,000원의 주식 19,000주에 대하여 임의 유상소각하기로 하여 발행 주식총수 20,000주를 1,00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음. 이 자본 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게제 익일부 1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18일

주식회사 진흥기업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2로 68, 7층 2호실 (봉선동)
대표이사 오영진

상속한정승인 공고

피상속인 방 박야순(한자: 林夜順, 생년월일: 1947. 03. 10. 최후주거지: 광주광역시 남구 효유로 262, 105동 1206호(행암동, 효천1차현대나무1단지(자이파트))의 아래 상속인은 2024년 4월 11일 광주가정법원 2024나276호로 상속한정승인판결을 받아 이에 따른 공고를 하오니, 위 방 박야순에 대하여 채권 등이 있거나 유증받은 자는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그 채권 또는 유증사실 등을 아래 장소의 공고인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상속채무 등의 청산으로부터 제외됩니다.

2024년 4월 18일

공인(한정승인): 오 병규
채권 등의 신고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무심서로 413번길 5, 401호(모충동)
법무사 송재구사무소

안 팔리는 부동산 교환전문

010-3605-5000

지분임야 바로 삽니다

010-5962-3200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특자와 함께 걸어온 길 72년

광주일보 문화예매가진

광주일보

광고문의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예약구독 220-0550